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이복섭	면담자	표기자		
면담장소	보령목공 사업장 내	면담지원	허은영		
면담 일시	2022년 9월 8일	회차	2	시간	56분 45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690				
구술 개요	3남 2녀 중 둘째로, 보령 시골에서 살았음. 무늬목 제작 과정을 설명. 현재는 무늬목의 거의 없음. 문짝 자재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목으로 돌아옴. 문짝은 아무리 수요가 줄어도 없어지지 않음. 그래서 이 분야를 오랫동안 하고 있음.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오래 이 일을 하길 바람.				
주요 색인어	남매, 시골, 농사, 나무, 놀이, 가난, 오랫동안, 평탄, imf, 편해지다, 수입, 부가가치, 무늬목, 문짝, 불이다, 건조, 원목, 비싸다, 자연, 나무, 편안함, 일본어, 시장, 축소, 경쟁, 인터넷, 오래, 버티다, 관심, 톱밥, 농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가족소개2, 유년시절 고향 이야기					▷활동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녹취문
- 3남 2녀 중 둘째, 고향은 보령. - 저학년 때까지 호롱불 켜고 살았음. - 여름엔 농사 거두고, 겨울엔 나무함. -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왔음. - 어릴 때 자치기, 팽이 돌리기, 연날리기하고 놀았음.					
2. 가족 이야기					
- 목공을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활성화된 직업 중 하나였음. - 목공 직업에 대한 배우자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음. - 탁구장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함. - 아내는 목공일에 전혀 관여 안 함. - 집에는 공예품을 잘 안 만들어 줌. - 한 가지 직업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음. 큰돈은 못 벌지만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도 아빠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임.					
3. 옛날 목공 일					
- 목공소 차리고 나서 목표가 50세까지만 하고 이후부터는 편하게 지내려고 했음. 계획대로 안 됨. 그렇지만 일이 갈수록 편해짐. 기계가 잘 나오고, 2차 가공까지 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					

- 옛날에는 힘든 1,2차 가공까지 다 했었음. - 이 일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편.		
4. 무늬목 제작 - 1차 무늬목 공장이 있고, 그 무늬목 공장에서 무늬목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2차 무늬목 가게가 있음. - 우리는 무늬목 가게에서 무늬목을 사다가 문짝을 만듦. - 무늬목을 사다가 물에다 적심. 물을 짹 뺌. 문짝에다가 본드칠을 해서 젖은 상태의 무늬목을 붙임. 햇볕에 말림. 뜬 부분은 다리미질을 함. 마지막으로 사포질을 한번 싹 해줌. - 지금은 무늬목이 거의 사라짐. - 그 이후엔 기성문들이 나오기 시작함. - 자재가 나무에서 플라스틱, 필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목 문짝으로 바뀜. - 주로 중산층 이상, 한옥 아니면 고급 음식점에서 주문이 들어옴. - 문짝은 아무리 수요가 줄어들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편. - 수요가 없어도 제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일거리가 계속 유지됨. - 나무는 편안함. -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건축을 펴뜨리고 문짝 짜는 법을 가르쳐서 목공 용어에 일본어가 많고, 기계도 일제 기계가 많다.		
5. 승의동 목공예거리 - 30년 전에는 승의동보다는 도원동이 활성화됐었음. - 마을과 목공 분야가 축소되고 있음. - 개발되니까 나가게 되고 승의동으로 이전함. - 승의 목공예 거리 지정된 지 10년 정도 됐음. - 목재 창문은 거의 없어지는데 한옥 문살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될 것임. - 동종업계끼리 모여있는 게 좋음. - 자기들만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경쟁은 없음. - 인터넷으로 주문이 더 많음. - 건강 허락하는 데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목공일을 하길 바람. - 개발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을 자체가 오래 버텼으면 함.		